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원종권 핀따노
사도회장: 허진 세바스찬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966-8206)
사 무 실: 703-968-3010
703-968-3011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해"

CYO lock in

"Lock-In was a memorable event filled with community building activities and a time to reflect on our lives and our relationship with God. It was nice to have a break from all of the school work and extracurriculars to spend the night at church and connect with our CYO community"
- Jisuh Lee, 10th grade

지난 4월 10일,11에 본당에서 CYO Lock-in 행사가 있었습니다. Lock-in은 고등학생들이 성당에서 밤을 보내는 행사로, 미사로 시작하여 소그룹 나눔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밤을 보냅니다.

올해의 행사 주제는 "Live by faith, not by sight"였습니다. 학생들은 카톨릭 신앙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며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성공적이고도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My experience at lock in was absolutely incredible. I loved the insightful games the teachers had planned and had a great time afterwards bonding with the cyo family. I learned how to live by faith not by sight, and to always trust in Him."
- Alice Shin, 12th grade

"Lock-in was a meaningful way to close out my senior year. I really appreciated the balance between the high-energy team activities and the quieter small group talks. It felt like a genuine space to grow in my faith alongside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m grateful to the staff for putting this together and am glad I was able to share many great memories at my last Lock-in! Lastly, I would highly recommend this event to students in the future because Lock-in never failed to disappoint me."
- Paul Lim, 12th grade

천사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지난 4월 15일 레지오 마리애 천사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단장 김정선) 단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시아 패밀리스(대표 송화강)에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50개를 전달했습니다.

아시아 패밀리스는 한인 입양인들에게 영어로 한국 문화를 교육하고 입양아와 입양가족이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화강 대표는 “카네이션은 내달 9일 아시아 패밀리스의 코리안 컬쳐스쿨 종강식에서 한인 입양아들이 양부모들에게 달아주는데 사용된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꾸르실료 골프대회

지난 4월 18일에 프린스윌리암스 골프코스에서 8년만에 본당 꾸르실료 주최로 동중부 꾸르실료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올해 7월에 예정된 여성 19차, 주말 3박 4일 교육 기금 조성을 후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리치몬드, 볼티모어, 메릴랜드 (온니), 에스파니 (조지타운), 그리고 본당 꾸르실리스타들과 여성19차 주말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신자분들, 112명의 골퍼가 한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중부 꾸르실료 지도 신부님이신 온니 성당 박문성 마태오 신부님, 본당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 리치몬드 성당 김택민 마태오 신부님 그리고 미주 평화신문 김찬미 가비노 신부님께서도 꾸르실리스타들과 동반 라우딩하며 분위기를 한층 올렸습니다. 대회 후에는 본당 으로 이동하여 시상식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신부님의 강복으로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네, 여기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주 부르시곤 했습니다. 부르시는 목적은 대부분 심부름이었고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신나게 노래 부르며 하는 심부름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궁시렁거리며 하는 심부름도 제법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가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렸다는 뿌듯함에 기분이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가끔은 꾀를 부려 못 들은 척하거나 숨어 있다가 혼이 나고 기분도 엉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고했다며 맛있는 간식이나 심지어 용돈이라도 주실라치면 그 기분 최고였지요.

사실 우리는 부르심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부르심과 응답의 연속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부를 때는 무엇인가 용건이 있다는 뜻이기에 가끔 그냥 불렀다는 이들을 우리는 싱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는 어떨까요?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도 부르심과 응답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성소라면 하느님을 부르는 나의 목소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싱거운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사제 성소, 수도 성소, 혼인 성소 등으로 구분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있고,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감각을 키워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요한 10,7)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또한, 그분은 '나는 착한 목자다'(요한 10,11)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 채 말씀을 듣고 빵을 나누며 함께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뛰어난 감각을 얻게 될 것이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고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길잡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모두 성소 안에 담긴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우 요셉 신부

[금주의 교리 상식]

성소주일

부활 제4주일은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란, 신앙인들이 살아갈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소는 다양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특별히 사제직과 수도 생활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제와 수도자는 교회의 삶과 사명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유럽은 우리보다 일찍 성소자 수의 감소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오 12세 교황은 교황 권고를 통해 사제 지원자의 감소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느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언제나 필요한 사제들을 가지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가능한 다른 모든 방법으로 다양하게 협력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4년, 부활 제3주일을 성소 주일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1969년 전례력이 개정되어 1970년부터는 지금처럼 부활 제4주일에 성소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소 주일은 우리 교회 전체가 성소를 계발하고 육성하는 일에 기도와 활동으로 협력해야 함을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성소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얻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고, 성소 육성의 첫 자리인 가정과 본당에서부터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일깨워주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지니는 활력은 사제와 수도자의 배출로 가늠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가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교구의 성소자가 풍부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청년성서모임 연수

3명의 청년회 일원들이 창세기 성서공부를 마치며 봉사자로 거듭나는 단계인 창세기 성서연수를 수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제34차 미동부 창세기 성서연수는 일리노이, 뉴져지, 뉴욕, 인디애나, 매릴랜드 등에서 모인 28명의 연수생을 상대로 뉴져지에 위치한 Villa Pauline Retret Center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위해 본당 청년성서모임 봉사자 두명이 두달여간 다른 6명의 봉사자들과 수녀님들과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며 빡빡한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며 함께 해 준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연수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청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봉사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성서모임은 올해 상반기 학기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곧 시작될 하반기 성서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있을 영어권 창세기 연수에도 많은 청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성서모임 대표봉사자 한승진 아녜스(703-470-2171)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1. 교구 2차 헌금 안내

- 오늘은 미국 국내 선교 지원 (Catholic Home Mission Appeal)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부활 제 4주일 주간 모임 안내

- 4월 26일 (일)
  - 요한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루가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베드로회 피크닉 (오후 3시)
- 5월 1일 (금)
  - 봉성체 (오전 9시부터)
  - 십자가의 길 (저녁 6시 45분)
  - 베드로회 형제 모임 (저녁 8시)
- 5월 2일 (토)
  - 첫영성체반 성지 순례 (오전 9시)
  - 성모님의 밤 (저녁 7시 30분)

[WYD 세계 청소년 대회 안내]

- 2027 세계 청소년대회 (WYD) 참가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등록 : 2시, 5시 미사 후
- 참가비 : $3,800 + 항공료
- 등록 보증금 : $500 (Security Deposit)-등록시
- 납부 방법 : 일시불 또는 페이먼트 플랜 선택 가능
- 준비서류 : 여권 사본
- 환불 안내
  - 한국 WYD 페이먼트 마감 전까지 환불 가능
  - 전체 환불 마감일은 추후 공지 예정
- WYD 일정
  - 원주교구 : 7월 29일 - 8월 2일
  - 서울교구 : 8월 3일 - 8월 8일
  - 출발/도착 예정: 7월 27일 출발, 8월 9일 도착
- 문의 : 이기열 막시밀리안 콜베 (703-862-2569)

3. 부활 제 5주일 주간 모임 안내

- 5월 3일 (일)
  - 87차 예비자 입교식 (오전 8시 30분)
  - 구역 봉사자 회의 (오전 11시 30분)
  - K of C 월례 회의 (오전 11시 30분)
  - 바오로회 가정 모임 (오전 11시 30분)
- 5월 7일 (목)
  - 첫 목요일 신심 미사 및 성체 강복
- 5월 8일 (금)
  - 봉성체 (오전 9시부터)
  - Brother's Meeting (저녁 8시)
- 5월 9일 (토)
  - 유아 세례 (오후 2시)

4. 5월 첫 주간 전례 안내

- 5월 1일 (금)
  - 저녁 6시 50분 십자가의 길, 7시 30분 미사
- 5월 7일 (목)
  - 저녁 7시 30분 첫 목요일 신심 미사 및 성체 강복

5. 봉헌 예물 봉투 변경 안내

- 봉헌 봉투가 새롭게 변경됩니다. 봉헌시에 성명과 세례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공제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함)
- 봉투는 한 달 동안 동일한 봉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봉헌하신 후 다음 주일에 사무실에서 봉투를 미사 전에 찾아 미사 중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 2차헌금 때 사용할 봉헌 봉투는 예전에 사용하신 다른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5월 봉성체 안내

- 일시 : 5월 1일 (금), 5월 8일 (금) 오전 9시부터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598-3316)

7. 제 87차 예비자 입교식

- 입교식 : 5월 3일 (일) 오전 8시 30분 (하상관 110호)
- 예비자 교리를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첫영성체반 성지 순례 안내

-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성지순례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꼭 참석하여 은총의 시간을 함께하기 바랍니다.
- 일시 : 5월 2일 (토)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장소 : National Shrine & Franciscan Monastery (Washington, D.C.)

9. 성모님의 밤 안내

- 일시 : 5월 2일 (토) 저녁 7시 30분
- 장소 : 성전
- 성모님의 밤에 시, 노래, 악기 연주 봉헌하실 분 또는 단체는 전례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 주일 기도와 독서 복음으로 성모님의 밤 미사가 봉헌됩니다.
- 당일 새벽 미사는 있습니다.

10. 가톨릭 평화 신문 홍보 안내

- 일시 : 5월 9일 (토) - 10일 (일)
- 가톨릭 평화 신문에서 본당을 방문하여 신문 홍보와 구독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 본당 신부 성지 순례 갑니다

- 일시 : 5월 4일 (월) - 5월 15일 (금)
- 본당 신부가 성지 순례를 떠나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성지 순례 기간 동안 결정해야 할 일들은 미리 본당 신부와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 교우분들과 함께 떠나는 성지 순례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2. 2026년 동중부 성령대회

- 주제 :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로마 8,14)
- 일시 : 5월 16일 (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장소 : 본당 성전
- 강사 : 김정경 실바노 신부
  (뉴저지 마돈나 본당 주임 신부)
- 회비 : $30 (점심 제공)
- 접수 : 매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이혜원 요세피나 (301-356-1585)

공통 안내 사항

친교실 의자 정리 가이드라인

- 성당 친교실을 이용하신 단체 혹은 개인은 사용한 의자를 접어서 한쪽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수품 준비에 함께 해주세요

- 이동한 다니엘 부제님 사제 서품식이 6월 6일(토) 성토마스모오 주교좌 성당에서 있습니다. 새 신부님 첫 미사는 6월 7일(일)에 우리 성당에서 봉헌됩니다. 다니엘 부제님 사제수품 준비에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 미사 전에 묵주 기도를 함께 바쳐주시고 개인적으로 사제를 위한 기도, 성소를 위한 기도 등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을 하실 분들께서는 매 미사 후에 성당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제수품 미사 때 참석하실 분들은 후에 추첨을 통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관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안내

- 하상관 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로 인해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간식, 음료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은 하상관 안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 모든 단체와 교우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하상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주차장 공사 안내

- 성당 주차장 공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4월 27일 (월) : 1차 코팅 및 라인 작업
  - 4월 28일 (화) : 2차 코팅 및 라인 작업
- 4월 27일 (월) 아침 미사 시간에 성당앞 주차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뒤쪽 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공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이 예상되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BLA)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실천하는 주교님 사목 보조비 BLA 기금은 교구내 자선 및 영적,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기도와 희생의 마음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봉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을 도와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 올해 본당 목표액 : $200,000

BLA 납부 방법 안내

Scan Me

- 온라인 접수 : 교구 웹사이트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성당 명칭 입력시 St. Paul Chung으로 입력)
- QR 코드를 스캔한 후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QR 코드 이용이 어려운 신자분들은 안내 장소에서 도움받으시거나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및 수표 : 배부해 드린 BLA 봉투에 넣어 성당 입구 BLA 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6년 4월 19일 (부활 제 3주일)

봉헌금 ---------- $8,426.00
교무금 ---------- $3,740.00
교무금 (신용카드) ------ $2,780.00
감사 헌금 ---------- $800.00
온라인 봉헌 ---------- $3,275.00
합계 ---------- $19,021.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오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6년 4월 30일 (목) 오후 5시 - 6시
2026년 5월 1일 (금) 저녁 8시 - 9시
2026년 5월 3일 (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 미사강론
2. CPBC 가톨릭 뉴스
3. 성모 성월 특집: 성모님을 사랑한 성인들
4. 영원한 도움의 성모 이콘

교중미사 예물봉헌

4/26 이번주	애난데일 구역
5/3 다음주	알렉산드리아 구역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